

정의와도덕

〈안코츠 (Ancoats) 형제회〉와 〈런던윤리학회〉에서행
한공개강연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정의와도덕
〈안코츠 (Ancoats) 형제회〉와 〈런던윤리학회〉에서행한공개강연
1888

편집위원회서문

편집위원회는 P.A. 크로포트킨의강연문 「정의와도덕」을출판하면서이 기회를통해몇가지사항을언급해야한다고생각했다.

크로포트킨의서문에서알수있듯이, 이소책자는강연원고였다. 그는 1888 년 (혹은 1889 년) 맨체스터의 〈안코츠형제회〉에서첫번째강연을, 다음에약간보완하여 〈런던윤리학회〉에서두번째강연을했다.

이강연과여기에서술된사상은향후크로포트킨의모든윤리학연구의출발점이되었다. 또한이강연이후크로포트킨은다른연구들과함께도덕의문제를연구하였으며, 1904-1905 년사이에이주제를다룬두편의영어논문을 - 「현대의윤리적빈곤 (The Ethical Need of the Present Day)」, 「자연의도덕 (The Morality of Nature)」 - 썼다. 두논문은영국의월간학술지 『19 세기 (Nineteenth Century)』 (1904 년 8 월호와 1905 년 3 월호) 에발표되었다.

크로포트킨은건강과여러다른절박한작업들그리고갑작스런제 1 차세계대전과러시아혁명때문에도덕의문제에전념할수없었다. 비로소 1918 년여름드미트로프시로이사한후에야크로포트킨은다시도덕의기원과발전그리고인간삶에서도덕의의미에대하이론연구에매진하게되었다.

이문제와관련된자료들을검토하던중크로포트킨은안코츠강연요약문과 〈런던윤리학회〉에서행한강연원고를발견하고, 이원고를인쇄원고로다듬어독립된소책자형태로, 더큰규모의윤리연구서발행에앞서출판하기로결심하였다. 이러한목적으로그는영어로된강연원고를러시아어로번역하였고, ‘드미트로프, 1920 년 1 월.’이라표기된길지않은서문을썼다.

크로포트킨은 1920 년내내주로‘윤리학’을연구하였으며, 사망하기몇달전인 1920 년말에는「정의와도덕」을한번더출판하려하였다. 그는이목적을위해원고를다시읽고수정하였고, 이후원고표지에‘출판할 것’과‘1920 년 12-15 사이에최종검토함’이라고기록했다.

이렇게크로포트킨은최종적으로이소책자를출판할수있게준비하였다. 편집위원회는고故크로포트킨의의지를즉각실현하고, 러시아독자들이위대한혁명가이자휴머니스트의저작과접할수있게하는것을우리의도덕적의무라생각한다.

더구나현재의매우열악한출판상황때문에크로포트킨의마지막대작인『도덕의기원과발전』 1 권이조만간빛을볼가능성이거의없음을고려할때더욱더그러하다. 크로포트킨은『도덕의기원과발전』에서자신의윤리학을상세하게기술하고그에대한근거를밝히고있다. 「정의와도덕」은크로포트킨윤리학의주요요소들에대한압축적이며평이한설명이다.

교훈을 얻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스스로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자들은 신학자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에는 도덕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 그들은, 선과 악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무엇이든지, 그 개념은 자연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었고, 나중에는 인류의 점진적 발전과 정의 제공한 것을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란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도달한 최상의 도덕적 이상은 동물의 세계에서, 원시인들에게서 그리고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우리가 때때로 발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동료를 지키기 위해 혹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때 발현됩니다. 이보다 더 높은 단계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없을 것입니다.

저자서문

나는 맨체스터의 〈안코츠 형제회〉에서 처음으로 「정의와 도덕」에 대해 강연하였다. 청중은 주로 노동자들이었고,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다. 이 형제회에서는 매년 겨울이면 일요일마다 내용이 충실한 강연회가 개최되곤 하였다. 그 결과 이들 청중 앞에서는 대중적인 설명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진지한 문제들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 강연을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나의 강연 직전에 유명한 다윈주의자인 헉슬리(T. Huxley) 교수가 1888년 초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든 동료들을 경악하게 만든 강연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에서 다윈주의를 확산시킨 장본인이었다. 이 강연에서 다윈과는 반대로 그는, 인간의 도덕은 자연적인 기원을 가질 수 없으며 자연은 인간에게 악덕만을 가르친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이었다.

헉슬리의 강연은 전반적인 놀라움을 야기하였고, 그에 대한 인상은 내가 도덕의 자연적 기원에 대한 강연을 준비할 때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의 강연 내용은 『19세기』 1888년 2월호에 게재되었고, 그 직후에 소책자로 출판되었다.

이년 혹은 삼년 후 나는 정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약간 보완하여 〈런던 윤리학회〉에서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

영어로 썼던 상세한 강연 요약문, 그리고 안코츠 강연 원고의 몇 부분, 그리고 또 윤리학회 강연을 위해 보완한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러시아어로 정리하여 이제 출판하게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중단했을 때도 있지만, 늘 도덕이론 강연에서 언급한 견해들 중에서 몇몇을 과감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강연문을 안코츠의 청중을 위해 준비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심하였다. 다만 〈런던 윤리학회〉에서의 강연을 위해 작성했던 내용으로 〈안코츠 형제회〉 강연문을 보완하였다.

P. 크로포트킨

드미트로프

1920년 1월

친구그리고 동료여러분!

「정의와도덕」을우리대화의주제로정했을때, 물론나는여러분에게도덕적인설교를하겠다는생각을하지않았습니다. 나의목적은완전히다릅니다. 나는여러분앞에서, 지금사람들이인류의도덕개념의기원, 그개념의참된근거와지속적인발전을어떻게이해하기시작했는가를분석하고, 이도덕개념들의지속적인발전에기여할수있는것을탐구하기를원합니다.

그런연구는특히오늘날필요합니다. 아마여러분들자신도, 우리들이사회관계의체계에서어떤새로운것이요구되는시대에살고있음을느끼고있을것입니다. 선진민족들사이에최근실현된, 지식과산업의빠른발전은가장중요한사회적문제들의해결을지연시킬수없게만들고있습니다. 새롭고더정교로운원리위에서삶을개조할요구가감지되고있습니다. 사회에서그런요구가성숙된다면, 도덕의기본개념들을재검토할수밖에없다는것이옳다고생각될것입니다.

다른가능성은있을수없습니다. 왜냐하면한시기의사회제도, 관습, 습관과같은사회체제는고유의도덕체계를사회속에유지합니다. 그리고서로다른사회계층들사이의관계에서발생하는모든본질적변화는이에상응하게기존도덕개념들을변화시킵니다.

서로다른발전단계에있는민족들의삶을보도록합시다. 오늘날의유목민들을예로들어보겠습니다. 몽골족, 퉁구스족그리고오늘날우리가야만족이라고부르는종족들이있습니다. 그들이양을도살하여고기를먹을때, 모든마을사람들을공동식탁에초대하지않으면, 수치스런행동으로간주될것입니다. 나는시베리아오지와사얀산맥의탐사여행을통해언은, 개인적인경험을토대로그것을알게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아주가난한야만인들인호텐토트족을예로들어봅시다. 그들중하나가숲에서음식을먹을때“나와식사를함께할사람은없습니까?”라고세번크게외치지않으면, 얼마전까지만해도그들사이에서범죄로생각되었습니다. 다윈도파타고니아¹의가장낮은발전단계의야만인들사이에서그런특성을발견하고놀란사례가있습니다. 다윈이그들중하나에게아주작은음식조각을주었는데, 그들은똑같은크기로음식을서로나누어먹었던것입니다. 그뿐만이아닙니다. 북아시아와중앙아시아모든곳에서, 유목민들사이에는법의역할을하는관습들이있습니다. 가령누군가나그네에게잡자리제공을거부해서그가배고픔과추위로죽게되었다고합시다. 사망자의가족들은잡자리제공을거부한자를살인자로서추적하여, 그에게혹은그의가족들에게살인의경우에관습이부과하는벌금을요구할권리를갖습니다.

¹ 역주 - 파타고니아 (Patagonia). 아르헨티나남부에있는지방. 건조한초원으로목양牧羊이활발하였다.

과거그리고지금까지도얼마나중요한가를이해할것입니다. 그리고그들은인간본성의이세특징속에서도덕에대한설명을찾아야함을이해할것입니다.

극단적개인주의, 즉‘자기자신을우선염려하는’행동방식이말과행동으로설파되고있는지금도, 상호부조와사회에대한사심없는헌신은사회생활과사회의지속적발전의본질적부분을구성합니다. 그결과인류는그것이없다면몇십년조차도살아남을수없을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도덕의본질과발전에대한이런사상은현대과학연구가들의생각속에서충분한반향을얻지못하고있습니다. 헉슬리는다윈의올바른해석자로인정받고있으며, ‘생존경쟁’과새로운종의선택에서생존경쟁의의미를해설하는작업을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다윈이인간의도덕개념을사람과동물모두에게한가지로존재하는본능(사회성)의결과라고설명했을때, 헉슬리는자신의위대한선생을따르지않았습니다. 도덕성을자연과학적으로설명하는대신, 한때열성적자연과학자였던헉슬리는신학과자연과학사이에서어정쩡한태도를취하고말았습니다.

허버트스펜서(Herbert Spencer)는발전이론위에세운합리철학연구에평생을바쳤고, 여러해동안도덕성의문제를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그는도덕적본능에대한설명에서완전히다윈을따르지는않았습니다. 그는동물들사이에서의상호부조를뒤늦게인정했습니다. 그는 1888년잡지『19세기』에발표된글에서, 동물들중몇몇종류에게도덕감정의단초가있다는것을인정했습니다. 그후에도『윤리학원리(Principles of Ethics)』에대한부록에서, 여전스펜서는원시인은‘사회계약을체결하고’어디선가모셔온현명한입법자들에게종속될때까지는도덕감정이없었다고하는흡스를옹호하였습니다. 말년에스펜서는약간의양보를하기도했지만, 그럼에도헉슬리처럼그에게원시인은여전히싸움을좋아하는동물, 강제, 법그리고부분적으로이기적인판단들을통해서만이웃에대한도덕적관계의몇몇개념들을획득한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과학은이미오래전에자연의빛이흐릿한색유리를통해비치는파우스트의서재에서빠져나와야했습니다.

학자들은먼지가쌓인서가에서가아니라, 자유로운평원과산에서, 태양의밝은빛소계서자연을연구해야할때입니다. 19세기에아메리카의인적없는광활한스텝에서과학적동물학의위대한창시자들이했던것처럼, 자신의믿음으로개증시키려는목적이아니라원시인들의관습과습관그리고도덕적심성을연구하려는목적으로그들과함께살았던참된인류학의창시자들이했던것처럼말입니다.

그때그들은도덕성이자연과관계없는것이절대아님을알게될것입니다. 모든동물의세계에서어미는새끼들을보호하기위해목숨을겁니다. 무리지어사는동물들은힘을합쳐맹수들을물리치고, 먹이를찾아서식지를옮길때에는거대한무리를이룹니다. 원시인들은동물들로부터도덕적

는 자신의 힘을 의식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에게 더 좋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능력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일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그는 이속에서 고통이 아니라 생명 추구와 완성을 봅니다. 허약한 무위의 삶과 바꿀 수 없는 삶의 충만을 봅니다. 자기 몫의 고통을 짊어져야 할 때, 그는 레르몬토프의 ²⁰ **뜨씨리**처럼 말할 것입니다.

… 나의 삶은
이행복한 3 일이 없었다면,
슬프고 음울한
그대의 무기력한 노년 같았을 것을…

극단적 개인주의가 말과 행동으로 설교되는 지금도, 상호부조는 인류 삶에서 여전히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자선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전하고 있는 전인류적인 감정을 향한 자연적인 출발의 형태로 상호부조에 더욱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도덕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발전시킨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도덕에 대해 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도덕을 위로부터의 계시, 타고난 자연적 감정은 개인적, 합리적으로 이해한 개인적 혹은 사회적 이익과 같은 어떤 **하나**의 원리로 수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도덕은 인류 안에서 서서히 발전했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복잡한 감정과 개념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적어도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① **본능**, 즉 유전된 습관, **사회성**. ② **우리** 이상의 **개념 - 정의**. ③ **이성에 의해 고무된 감정**입니다. 이것을 **자기 희생** 혹은 **헌신**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정 안에 희생과 헌신이 없고, 대신 본성의 꾸며낸 위압적 요구만이 충족될 때, 이 감정이 가장 완전하게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관용’이란 단어로도 이 감정을 완전하고 올바르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관용’이란 단어가 인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최상의 자기 평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인간은 그러한 평가를 거부합니다. 바로 여기에 도덕의 참다운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 충동을 초자연적인 영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상가들도 이유 혹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공리주의자들도 올바르게 이해한 이익의 발전으로도 덕을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대립하는 두 학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교회의 편견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발전된 상호부조, 정의에 대한 합리적 판단, - 기오가 기록한 것처럼 - 강력한 지혜와 감정을 소유한 사람들의 사심 없는 충동이

도덕에 대한 이런 여러 개념들은 씨족 제도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이 관습들은 국가로 살기 시작한 이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도시나 마을에서는 순경이나 경찰이 집없는 유랑객을 보살피고, 길 거리에 서 얼어 죽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를 관찰 시설로, 수용소 혹은 노동자 숙소로 데려갈 의무를 갖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지나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렇게 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깊은 겨울 밤 집없는 행려자가 배고픔과 추위로 안코츠 거리 중 한 곳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들 중 누구도 여러분들을 살인자로 추적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려자에게는 가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씨족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씨족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씨족 제도와 국가의 장점들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는 인간의 도덕 개념들이 살고 있는 사회 체제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를 원합니다. 특정 시기 특정 민족의 사회 체제와 도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사회에 생길 때마다, 도덕 문제에 대한 활기찬 검토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는 도덕 개념들에 대한 고민 없이, 사회 체제의 개혁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극도로 가벼운 처사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정치와 경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모든 논의의 토대에는 도덕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경제 학자들로 예로 들어 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기아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공산주의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 아니지요? 일하기를 중단한다면 총체적인 굶주림에 빠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요? 모든 것은 어떤 공산주의를 도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도로포장, 거리조명, 전차, 도시 교육 시설 등의 형태로, 유럽과 미합중국의 도시 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시 공산주의가 도입되었는지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순수 경제적 문제가 어떻게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 능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문제는 경제 영역으로부터 도덕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아니면 사회 생활에서의 새로운 제도에 대해, 예를 들어 아나키즘 이론 혹은 전제 국가에서 입헌 국가로의 이행에 대해 논의하는 두 정치가를 보도록 합시다.

이미 수립된 권력을 옹호하는 학자는 말합니다. “무슨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릴 강력한 손이 없으면, 모두가 강도가 될 것입니다.” 그에게 다른 학자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감옥의 공포가 없다면, 당신도 강

도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하겠군요?” 결국 사회의 정치 체제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제도의 영향이란 문제로 귀결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도덕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또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윤리에 대해, 즉 인간의 도덕 개념의 기초와 기원에 대해 고찰하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최근에 매우 중요한 질문과 관련된 연구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나는 얼마 전 저명한 다윈주의자이자 교수인 헉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행한 강연 「진화와 도덕」 만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강연을 알고 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헉슬리는 강연에서 **도덕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아주 충분히 분석하였기 때문입니다.²

헉슬리의 강연은 언론에서 일종의 다윈주의 성명서로, 현대 과학이 도덕의 토대와 기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결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는 거의 모든 사상가들이 연구했던 문제입니다.

이 강연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강연이 저명한 학자이자 다윈 진화 이론의 중심 해석자들 중 하나의 견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는 강연에 몇몇 진화론적 형식을 가미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최고의 영국 산문 작품을 대하듯이 이 강연에 반응하였습니다. 주된 의미는, 유감스럽게도 강연이 요즘 지식인 계급 사이에 만연된 견해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견해들을 이 계급 대부분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헉슬리가 강연에서 끊임 없이 반복하는 핵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에 따르면, 세계에는 두 종류의 현상이 완성되고 있으며, 자연의 우주적 과정 그리고 윤리적, 즉 도덕적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과정’은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적인 그리고 비 생명적인 자연의 모든 삶입니다. 이 과정은 바로 “이와 발톱을 드러낸 혈투”라고 헉슬리는 주장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모든 도덕 원리들을 부정하는, 필사적인 경쟁”이란 것입니다. “고통은 감정을 소유한 모든 생물의 운명이다. 고통은 우주적 과정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원숭이가 갖고 있는 생존 경쟁 방법들은 이 과정의 참되고 특징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서도 자기 주장, 빼앗을 수 있는 것 모두를 빼앗는 비양심적 강탈,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집요한 소유가 가장 적합한 경쟁 수단입니다. 이 소유는 생존 경쟁의 정수를 이룹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교훈은 결국 ‘유기적 악이란 교훈’입니다. 자연이 도덕과 관련이 없다고, 즉 자연은 도덕을 알지 못하며 도덕적 질문에 대해 어떤 답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명백히 비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적 자연은 절대로 도덕의 학교가 아니다. 반대로 자연은 모든 도덕에 적대적인 것들의 총사령부다.”(소책자로 출판된 헉슬리의 첫 번째 강연문 27 쪽) 란 것입니다. 때문에 자연에서 어떤 가르

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대신에 동물적 무관심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완성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의 실현에 필요한 의지의 부족을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중의 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때 나는 영국 남쪽 해변의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곳에 해상 재난 구조 기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해안 경비대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대원이 지난 겨울 오렌지를 적재한 작은 스페인 배의 선원들을 구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강한 눈 폭풍이 불던 날, 그 배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 않은 얇은 곳으로 밀려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성인 다섯과 어린이 하나를 이루어진 승무원들은 할 대에 몸을 묶고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얇은 해안에서 구조선은 바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해변으로 다시 밀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아침부터 해변에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 3 시가 되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 월이었거든요. 돛대에 몸을 묶은 어린이의 절망적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것은 미친 짓이고 절대 바다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먼저 한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조선을 다시 띄웠습니다. 한 참을 파도와 싸운 후에 우리는 드디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때 파도가 구조선을 덮쳤습니다. 우리들 중 둘은 익사했습니다. 조는 불쌍하게 배전의 밧줄에 감겨, 우리는 앞에서 파도에 허우적거렸습니다... 결국 엄청난 파도가 우리 모두를 구조선에서 해변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다음 날 여기서 2 km 정도 떨어진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지요. 스페인 선원들은 텐게니스에서 온 대형 구조선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물론 론다 계곡의 광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폭발로 막힌 지하 갱도를 이틀 동안 뚫었습니다. 붕괴된 갱도에 갇힌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 순간 반복되는 폭발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새로운 붕괴로 매몰될 수도 있었습니다. “폭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몰 지역 반대쪽에서는 동료들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들이 보내는 아직 살아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둘 더미를 뚫고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크고 작은, 진정으로 이타적인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그렇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동일화할 수 있게 교육받은 사람, 내부에 감정, 지혜, 의지의 힘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을 돕기 위해 자유롭게 그것을 제공하고, 이승에서의 혹은 미지의 저승에서의 어떤 보상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그들의 삶을 함께 느낍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타인들과 기쁨과 아픔을 나눕니다. 그는 그들을 도와 삶의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

그러나이 모든 경우에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주로 자기 힘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려는 욕구입니다.

그외에, 감정이 이성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한다면, 이미 감정은 어떤 다른 상급의 제재, 동의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외부로부터 부과된 어떤 약속도 요구하지 않습니다.¹⁹ 그 자체가 이미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달리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은 인간 전체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런 행동은 이성에 의해 정당화됨을 아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오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러저러하게 행동하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는 자주 투쟁이 발생합니다. 인간은 한 덩어리로 조된 완전한 어떤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들 개개인 속에는 어느 정도의 개성과 어느 정도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동경하는 것과 마음이 끌리는 것이 부조화 상태에 있어 걸을 때마다 서로 모순된다면, 그때 삶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것도, 심지어 죽음도 지속적인 분열과 영원한 광기로 이끄는 충돌보다 낫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이러저러한 편에서 이러저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취해진 결정을 부정직한, 소심한, 속물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에 분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은 어떤 궤변, 즉 정당화를 위한 자기기만을 고안해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정직하고 강한 성격의 경우에 궤변은 불가능합니다. 비록 무의식적이지만, 내적인 존재의 요구가 우리를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양심이라 부르는 것과 이성의 일치가 새롭게 확립되고, 조화가 이루어 집니다. 이 조화는 인간에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현격하게 강력해진, 즉 완전하고 즐거운 삶, 그 앞에서 있을 수 있는 고통들은 힘을 잃게 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을 보잘 것 없는 무위도식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이 우리가 ‘희생’이라 부르는 것을 행한다면, 그의 눈에 이것은 전혀 희생이 아닙니다. 기오가 기록한 것처럼, 개화한 후에 필연적으로 죽음이 찾아와도, 식물은 꽃을 피워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사람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넘치는 동정을 느끼거나 지적인 생산성 혹은 창조적 능력의 욕구를 느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상관없이 자신의 힘을 자유롭게 제공합니다.

보통 그런 행동들을 자기 희생, 자기 부정, 헌신,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칭들은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주 스스로 육체적 혹은 심지어 도덕적 고통을 스스로에게 부

침도 끌어내서는 안 되며, 자연은 “때문에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31 쪽) 고합니다. 결국 “도덕적 관점에서 더 좋은 것, 우리가 덕 혹은 덕행이라 부르는 것을 실현하기 원할 때,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원시적 행동 노선을, 우주적 생존 경쟁에서 성공으로 안내하는 행동 노선을 따르도록 강요받는다.”(33 쪽) 는 것입니다. 헉슬리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의 삶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가르침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유기적 사회를 이루어 살기만 하면 어디서 인지 모르지만, 뜻밖에도 사람들 사이에 ‘윤리적 과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과정’은 자연에서 배운 모든 것과 무조건 대립합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모든 존재 조건들의 관점에서 가장 적자인 사람들의 생존이 아니라, “도덕적 관점에서 최상인”(33 쪽) 사람들의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과정은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자연으로부터 유래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법과 관습을 통해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도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그러나이 도덕적 과정은 어디로부터 탄생했을까요?

인간의 도덕원리들은 입법자에 의해 부여되었다는 흄스³의 견해를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헉슬리는, 입법자는 **자연의 관찰로부터 그런 생각을 차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이전의 동물 사회에도, 원시인들에게도 윤리적 과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헉슬리가 옳다면 이것으로부터 윤리적 과정, 즉 인간의 도덕원리는 절대로 자연적 기원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원의 출현에 대한 유일한 가능성이 가능한 설명으로는 결국 초자연적 기원만이 남습니다. 가령 선행, 우정, 상부상조, 충동과 욕망의 자제 自制와 희생과 같은 도덕적 습관들이 절대로 인간 이전의 혹은 원시적 군집 상태에서부터 발전할 수 없었다면,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원을 초자연적인, 신적인 계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윈주의자이며 자연과학자인 헉슬리의 결론은 그를 불가지론자로, 즉 무신론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은 불가피합니다. 헉슬리가 자연의 삶으로부터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 가르침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을 때, 남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즉 도덕의 초자연적 기원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때문에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동시에 저명한 자연과학자인 조르쥘 미바르트 (George Mivart) 는 헉슬리의 강연문 출판 이후 즉시 『19 세기』 에 논문 「헉슬리씨의 진화」 를 게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강연자가 교회의 가르침으로 귀환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미바르트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사실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윤리적 과정’이 자연에 없다고 주장하는 헉슬리가 옳든지, 아니면 다윈이 옳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 번째 저서인 『인간의 유래』⁴ 에서 다윈은 베이컨

(F.Bacon) 과 오귀스트 콩트 (A.Comte) 를 따라, **동물의 무리에서는 군집생활의 결과로 사회적 본능이 강하게 발전하며, 그 결과 본능은 가장 지속적인 속성이 되고, 이 본능은 자기 보존의 본능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⁵ 샤프츠베리를 따라 다윈이 보여준 것처럼, 이 본능은 원시인의 경우에도 강력했습니다. 또한 원시인에게서 이 본능은 언어, 전승, 습득된 관습 덕분에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점이 옳다면, **인간의 도덕 원리는 거의 모든 생물의 속성이며 모든 살아있는 자연에서 관찰되는 사회성의 본능이지 지속적으로 발전된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인간에게서 이 본능은 이성, 지식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관습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과 그 결과인 예술과 문자 사용은 인간이 생활의 경험을 축적하고 상호 부조와 연대의 관습을, 즉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상호 의존의 관습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의무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렇게 해서 분명해집니다. 칸트는 의무감을 절묘한 문장으로서 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골똘히 면서 도 자연 법칙에 맞는 설명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자연을 가깝게 알고 있던 다윈은 도덕 감정을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자연의 참된 삶을 보지 않고, 박물관의 박제를 통해서만 동물의 세계를 연구하며, 우리의 암울한 분위기에 따라 그것에 대해서 술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어떤 비밀스런 힘 속에서 도덕 감정의 해명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헉슬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이 상한 일이지만, 강연 후 몇 주가 지나 강연문의 소책자를 발행하면서 헉슬리는 보충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서로 대답하는 자연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두 ‘과정’이라는 기본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충 설명에서 그는, **동물 사회에서 실천되는 상호 부조 속에서, ‘윤리적 과정’의 원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연에서는 이 원리의 존재를 열렬히 부정했었습니다.

헉슬리가 왜 몇 주 전에 했던 강의의 본질을 전면 반박하는 보충 설명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가정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의 친구인 옥스퍼드 대 로마니스 (G.Romanes) 교수의 영향 때문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로마니스 교수는 당시 동물의 도덕에 관한 연구 자료를 준비 중이었고, 헉슬리는 위원장으로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로마니스’ 강연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의 친구들 중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훗날 헉슬리의 전기 작가가 이것을 연구할 것입니다.

재혹은 미래의 삶에서 받을 포상의 약속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 아닐 때에만 좋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행위들의 사회적 유용성 혹은 약속된 개인적 행복에 대한 고려 때문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내적 충동에 의한 것일 때에만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그 행동들은 진정으로 도덕의 범위에 속합니다. 본질상 그것들만이 ‘도덕적’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인류 사회는 가장 처음부터 그런 종류의 행동 경향을 발전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교육, 민요, 전설, 도덕서, 예술, 종교는 이런 흐름 속에서 기능하였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의무로 격상**되었고, **‘의무감’**은 다양하게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행동에 대한 현세 혹은 내세에서의 상을 약속할 때, 사람들은 자신 혹은 동포를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의, 즉 평등권이 사회 생활의 기초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자기 희생을 위해 어떤 유혹적 제안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지금에서야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이란 용어 자체가 그런 행동들의 본질을 적절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자신의 힘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면서, 반대급부로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성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개들로부터 새끼를 구출하기 위해 나섰던 개코원숭이처럼, 그는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도, 칸트의 명령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온갖 실용적인 의도도 없었던 원숭이처럼 말입니다.

‘의무감’이 도덕적 힘이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자연적 욕망이 서로 대립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 망설일 때, 이런 어려운 경우에 만나야 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위 ‘희생적인’ 사람들은 의무감을 상기시키지 않아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사망한, 매우 공감 가는 프랑스 사상가 마리-장기오 (Marie-Jean Guyau) 는 내가 도덕의 세 번째 구성 요소라고 칭한 것의 참된 성격을, 내가 틀리지 않다면 최초로 완전히 이해했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 생각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리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눈물 혹은 즐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타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개인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의지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 의지의 잉여는 협소한 이성의 지배를 받아 침략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성이란 정신 속에서 발전된, 폭넓은 이성 과 감정의 지도를 받는다면, 때로 그것은 새로운 종교 혹은 사회의 개혁을 완성시키는, 새로운 사회 운동의 창시자를 만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의는 도덕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서비스의 교환에서의 평등일 뿐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상업적 부채나 신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도덕의 구성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문에, 정의 그리고 그것의 필연적 결과인 평등권이 사회체제의 기초가 될 때, 모든 인간 삶에서 심오한 변혁이 완성될 것입니다. 실제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어 기독교의 형태로 나타난 민중 운동, 그다음으로 종교개혁 시기의 민중 운동들,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혁명, 이들은 모두 평등권과 평등을 추구하였습니다.

입법을 통해 사회 모든 구성원의 평등권이 선포된 것은 18 세기 말 프랑스 혁명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서 도 사회 생활에서의 평등권 원리의 실현은 아득히 멀리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각각의 민족은 계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한계층이 다른 계층 위에 존재합니다. 러시아에서 1861년까지, 북미에서 1864년까지 존속했던 노예 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에서 1797년까지 존속했던 광부들과 관련된 농노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에서 ‘구빈원 救貧院의 도제들 (workhouse apprentices)’이라 불리는 극빈 아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8 세기 말까지 특수에이전트들은 영국 전역을 돌면서 극빈 아동들을 모집하여 헐값으로 랭커셔 (Lancashire) 의 면직 공장 노동에 투입하였습니다.¹⁸ 마지막으로, 교육 받은 사람들이 ‘하급 인종’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추악한 태도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도덕 발전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은 결국 **정의의 인정**, 즉 모든 인간들에 대한 관계에서 평등의 인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회 도덕은 현상태로 즉 위선적인 상태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위선은 현대 개인 도덕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이중성을 유지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성과 정의가 도덕성의 모든 것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제 3의 구성 요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희생**, **관용의 정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증주의자들은 이 감정을 **이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에고이즘 (egoism), 즉 **이기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기독교의 이웃 사랑 개념을 피해 갑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개념을 피하는 이유는, **‘이웃 사랑’**의 개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을 희생하도록 인간을 움직이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희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이 ‘타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랑**도 절대 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는 이 타인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처럼 **‘이타주의’**도 그런 종류의 행동의 성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은 **자연적** 일 때에만, 위로부터의 강제나 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에서도 도덕의 발단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회를 이루며 사는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 사이에서 사회적 삶은 그들의 본능의, 즉 유전된 습관들 그리고 도덕적 성격의 필연적 발생과 발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습관들이 없다면 사회적 삶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 그리고 보다 고등 동물인 포유류에서도 도덕 개념의 발단을 찾았습니다. (곤충류의 발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개미, 땅벌, 꿀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에게서 우리는 이미 필수적인 것이 되어 버린, 사회를 이루며 사는 습관과 또 다른 습관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남들이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너희도 나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회의 이익을 위한 자기 희생 생을 그들 사이에서 아주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 무리 속에서 젊은 앵무새가 다른 앵무새 둥지에서 새끼 암컷들을 끌어내면, 다른 앵무새들이 그놈을 공격합니다. 북에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제비가 지난 해에 남의 것이었던 둥지를 차지하는 경우, 그 장소의 다른 제비들이 그놈을 둥지에서 던져 버립니다. 한 무리의 펠리컨이 다른 무리의 물고기 사냥 지역에 침입할 경우에 후자는 전자를 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동물학의 위대한 창립자들과 현대의 많은 관찰자들은 유사한 사실들을 다수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번도 자유로운 자연 속에서 연구하지 않은 동물학자들 뿐입니다.⁶

때문에 사회성과 상호 부조의 관습은 동물 세계에서 만들어졌으며, 원시인들은 동물의 삶에 나타난 이 특징을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가장 원시적인 민족들의 전설과 신앙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단언할 수 있습니다.⁷ 지금까지 남아 있는 원시 인간 사회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들 속에서 사회성의 관습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아가 연구 정도에 따라 우리는 개인의 횡포를 억제하고 평등의 원리를 확립하는 일련의 풍속과 관습을 밝혀 내고 있습니다.

평등은 씨족 관습의 핵심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싸우다 씨족의 다른 구성원이 피를 흘리게 만들면, 그도 동일한 양의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가 같은 씨족 혹은 다른 씨족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 다친 사람의 친척들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혹은 가해자의 씨족 중의 하나에게 동일한 크기의 상처를 가할 권리를 갖거나, 심지어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성서의 규칙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 생명에는 생명,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다.”는⁸ 여전히 씨족 제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서 지금까지도 성스럽게 준수되는 규칙입니다. ‘이에는 눈’ 혹은 ‘가벼운 상처에는 치명적인 상처’는 평등 과정의에 대한 통용되는 표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많은 원시 종족의 의식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고, 그결과사냥꾼이인간과유사한곰과같은동물의피를홀리게만 들면, 사냥에서집으로돌아오는길에곰의정의를위해동물들의도움을받 아자기피를조금흐르게합니다. 그런많은관습들은문명사회에도높은도 덕규칙들과나란히과거의유산으로남아있습니다.⁹ 그러나씨족제도에 서다른개념들도조금씩발전합니다. 모욕을가한사람은이제중재를모색 해야하고, 그의친척들은중재자로서나서야합니다.

정의, 즉평등에대한원시적표상을좀더자세히들여다보면결국그표 상은, 네가그런대접을바라지않는것처럼, 너도씨족의구성원에게절대 로그런대접을하지말라는바로그의무를표현하고있음을알게될것입니 다. 이것이야말로바로모든도덕의그리고도덕에대한모든학문즉윤리학 의제 1 기본원리를구성하는것입니다.

그러나이것으로충분하지는않습니다. 가장오래된원시종족들속에서이미우리들은훨씬더높은원리를찾고있습니다. 알류트¹⁰를예로들어 봅시다. 이들은가장오래된원시종족인에스키모족의한분파입니다. 탁월 한인물인베냐민선교사의업적덕분에우리는이들을잘알고있습니다.¹¹ 우리는이규칙들을빙하기이후형성된인간의도덕개념모델로생각할수 있습니다. 나아가유사한규칙들을우리는다른원시종족들에게서도발견 합니다. 이들규칙에는단순한정의의경계를벗어나는어떤것이있습니 다.

실제로알류트에게는두종류의규칙이있습니다. 의무규정과단순한 조언입니다. 내가이강연의서두에서상기시켰던규칙들처럼, 첫번째범 주는모든사람을동등하게대하는것, 즉정의·평등권의원리에기초합니 다. 여기에속하는것은다음과같은요구사항들입니다. 어떤경우에도씨 족의구성원을살해하거나상해를입혀서는안됩니다. 어떤경우에도곤궁 에빠진씨족의구성원을돕고한조각음식도그들과나누어야합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그를방어해야합니다. 씨족의신을존중해야합니다. 이와 같은규칙들은환기시킬필요도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그것들은씨족생 활의토대를이루기때문입니다.

그러나이런엄격한규칙과함께알류트와에스키모들에게는사전에규 정되지않고, 단지조언으로만존재하는일정한도덕개념이있습니다. 이 것들은‘~ 을해야만한다.’와같은표현형식으로표현되지않습니다. ‘~ 이 행해져야한다.’의의미를갖는그리스표현형식 (den)¹²도적합하지않습 니다. 조언들이이범주에들어옵니다.

알류트는“무엇을하지않는것은부끄러운일이다.”라말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어느정도굶주린사냥에서, 충분히강하지않고나약해지는것 은부끄러운일인것입니다.

강한바람이불때바다로나가기를두려워하거나부드러운배에서내동 땀이쳐지는것을두려워하는것은부끄러운일입니다. 바꿔말하면, 겁쟁

학이만들어지기시작했던 19 세기중반까지, 인간의원시제도들은별다 른주목을받지못했기때문입니다.

씨족사회에대한많은사실들을수집한지금, 정의에대한기본개념은 최초의원시인들에게서이미찾아볼수있으며, 최초의원시사회인씨족체 제의규범이되었음을알수있습니다.

그러나이것으로충분하지않습니다. 이미우리는더나아갈수습니 다. 나는과학에이런질문을제기하려합니다. “정의의기초는인간의본성 자체에있지않은가? 그렇다면정의는우리사유의생리학적특성을표상하 는것이아닌가?”

형이상학의언어로말하면, 정의에대한개념은기본‘범주’즉우리의성 의기본능력을표상하는것이아닌가라고물을수있습니다. 우리의성이평 등권을찾는이유는 **우리의사유기관들이그렇게하도록만들어졌음**을보 여주는것이아닌가라고물을수있습니다. 두반구로구성된뇌가그렇다고 할수있습니다. 우리가연구하면이문제에대한긍정적인답이나올것이라 고나는생각합니다.

우리의사유가수학에서등식이라알려진형식속에서지속적으로완성 된다는사실은, 즉이형식속에서우리가발견한물리법칙들이표현된다 는사실은나의제안에상당한신빙성을제공합니다. 우리가어떤결론에도 달하기전에우리의이성속에서일종의대화가일어난다는사실도알려져 있습니다. 이대화에서찬과반에대한결론이내려진다고합니다. 그리고 몇몇생리학자들은여기에서우리뇌구조의대칭성은아니라고해도, 여하 튼그것의복잡한구성의발현을봅니다.¹⁶

아무튼정의의생리학적개념에대한나의제안이옳은가혹은그른가하 는것은부차적인문제입니다. 중요한것은, 정의는도덕성의기본개념을 이룬다는것입니다. 모두에대한동등한관계, 즉정의없이는도덕도있을 수없기때문입니다. 지금까지윤리학에대해집필한사상가들사이에놀라 운견해차가 지배하고있다면, 사상가들대부분이정의의도덕의제 1 근거 로인정하기를원하지않았다는데에그원인이있습니다. 그러한인정은인 간의정치적, 사회적평등권의인정이될것이고, 그결과그것은계급적구 분을거부하게될것입니다. 그러나도덕에대해쓰는대부분의사상가들은 이러한사실에승복하려하지않습니다.

바람직한사회체제에대한저서에서노예제도를유지한플라톤에서 시작하여, 사도바울에이어 18 세기와 19 세기의많은저자들에게이르기 까지, 그들모두가불평등을옹호하지는않았지만, 그렇다고그것을부정 하지도않았습니다. 심지어프랑스혁명이자유와더불어평등과형제애 를기치로삼은후에도, 영국의고드윈 (W. Godwin) 과프랑스의프루동 (P.-J. Proudhon) 이정의의도덕적, 사회적체제의초석으로여겼습니 다. 하지만지금까지그들은예외적인위치를점하고있습니다.¹⁷

‘네가원하지않는것을다른사라에게도하지말라.’라고말할때, 우리는정의를요구합니다. 정의의본질은모든사회구성원의 **평등한가치**, 그 결과로나오는그들의 **평등권**, 그들이다른사회구성원들에게요구함에 있어서의 **평등**을인정하는것입니다. 이와함께그러한평등의인정은자신을다른사람보다우위에두려는요구의거부를포함합니다.

그런평등개념이없다면도덕은불가능했을것입니다. 프랑스어와영어에서정의와평등은동일한어원의단어로표현됩니다. 그것은 *équité*(정의)와 *égalité*(평등), *equity*(정의)와 *equality*(평등)입니다. 그런데이개념은이미군집동물들에게서나타났습니다. 수컷의지배가몇몇동물군에서보이기도합니다. 그러나그외의다른동물들에게는이것이없습니다. 반대로우리가칼그로스(K.Groos)의저서『동물의유희』를통해알고있는것처럼대부분의동물군에서는젊은세대의놀이강하게발전했습니다. 새끼염소들과다른동물들의놀이를관찰할때확인할수있는것처럼이놀이에서평등권의엄격한준수가언제나요구되었습니다. 어느누구도어미의관심을더많이갖지못하게하는어린동물새끼들에게서도같은것이발견됩니다. 우리가보듯이, 정의의감정은철새들에게서도관찰됩니다. 철새들은각자가지난해만들었던둥지로돌아갑니다. 그러한사례들을많이제시할수있습니다.

각지역의권력자들이등장하기전까지인간들사이에, 심지어가장초기원시인들사이에서도정의에대한개념은더욱발전하게되었습니다. 나는이미두세가지예를들었고, 이제한가지만덧붙이려고합니다. 학자들은씨족사회를연구하기시작하였으며, 이제는중앙아프리카에서지금도볼수있는것과유사한원시왕조를더이상씨족사회와혼돈하지않게되었습니다. 그래서원시종족의평등권에대한사실들을모아여러권의책을쓸수도있게되었습니다.

사람들을이렇게반박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최초의원시종족들에게도어느정도권력을가진군인, 지도자, 마법사와샤먼들이있었다고말입니다. 실제로인간사회에서특정권한을소유하려는열망은아주일찍부터나타났습니다. 그런데학교에서가르치는역사는‘최고권력’을찬미하려는목적으로그런사실들만강조합니다. 때문에학교에서가르치는역사는불평등이어떻게창조되었는가에대한이야기라고부수있습니다. 그러나동시에사람들은태동하던권리의불평등과모든곳에서완강하게싸웠습니다. 때문에옳은역사는, 개별적인사람들이보통의수준보다더높은계급을만들기위해어떤노력을했는지에대한, 그리고어떻게대중들이이런시도에저항하여평등권을지켜냈는지에대한이야기가될것입니다. 씨족사회의모든제도들은평등권을수립하려는목적을까졌습니다. 그러나유감스럽게도역사가들은이러한점에대해서별로아는것이없습니다. 왜냐하면인간과인간사회의형식에대한두새로운학문인인류학과인종

이가되는것, 숨쉬없는것, 바람과싸울줄모르는것은부끄러운일인것입니다.

동료와사냥할때, 그에게더좋은몫을챙겨주지않는것은, 바뀌말해서욕심을보이는것은부끄러운일입니다. 물건을교환할때물건에가격을매기는것은아주부끄러운일입니다. 정직한판매자는구매자가제안하는가격에동의합니다. 이것은적어도알래스카의알류트들, 북동시베리아의추크치¹³족뿐만아니라태평양군도의원주민들사이에서도공통되는규칙입니다.

‘다른사람들처럼강하고, 숨쉬있고, 관대하지못한것은부끄러운일이다.’라고말하는알류트들의의도는분명합니다. 그들은‘약한것은부끄러운일이다. 즉지혜그리고육체과관련해서대부분의다른사람들과동등하지않는것은부끄러운일이다.’라고말하고싶은것입니다. 바뀌말하면, 그들은바람직한평등의원리에혹은적어도종족의모든남성들사이에바람직한것으로생각되는등가의원리에적합하지않는사람들을평가하는것입니다. ‘나약함을보이지말라. 나약함은너에게관용을베풀어주기를요구한다.’는것입니다.

그러한소망은에스키모여인들이긴북방의밤에어린이들에게불러주는노래에도표현되어있습니다. 노래는위에서술한사례에서요구되는수준을보여주지못하는남자들, 혹은충분한근거없이화를내는남자들, 대체로다른사람들과쉽게사귀지못하고비웃음을당하는남자들을조롱합니다.¹⁴

그렇게단순한평등혹은평등권의표현인정의원리를보완하기위해알류트들은일정한소망, 일정한이상을제시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그들은씨족의모든구성원들이가장강한자, 가장현명한자, 가장덜말썽일으키는자, 가장관대한자와동등하게되기를바란다는소망을표현합니다. 아직규칙은아니지만이러한행동방식은단순한평등권보다더높은무엇을제시합니다. 그것은도덕적완성에대한열망을드러내보여줍니다. 어떤경우에도우리들은모든원시종족들에게서이런특징을만나게됩니다. 그들은쉽게접할수있는동물들사이에서가장강한수컷이때로자신을희생하면서라도, 암컷들과새끼들을보호하기위해몸을던진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그들은생활환경에서나온이야기와노래에서종종목숨을무릅쓰고자연혹은적과싸워종족을구해낸사람들을찬양합니다. 그들은용기, 사랑, 숨쉬, 기지, 민첩한행동에서탁월한능력을보여준사람들에대한간노래를만들어부릅니다. 이들은아무런대가도바라지않으면서도, 다른사람들의행복을위해헌신하였기때문입니다.

이렇게혁신리가말한‘윤리적과정’은동물세계에서시작되어인간에게로이동하였습니다. 여기서그것은전설, 시, 예술덕분에점점발전하여인류의개별‘영웅들’속에서그리고인류의몇몇스승들속에서최상의수

준에도달하였음은명백합니다. 동족의이익을위해목숨을내놓을수있는 태도는모든민족의사에서찬양을받았고, 후에고대의종교로변하였습니다. 씨족의의무적인복수대신에원수에대한용서가추가되어이태도는불교와기독교의토대가되었고, 무엇보다기독교가국가종교가되기전까지, 기독교가다른종교들과구별시켜주는이기본입장을거부하기전까지 기독교의성공에영향을주었습니다.

그렇게도덕개념들은전체자연에서그리고후에는인류에게서발전하였습니다.

고대에서오늘날까지, 사상가들의저술에나타난발전대에대해여러분께 짧게설명하고싶은마음이간절합니다. 그러나오늘은단념해야하겠습니다. 한번의강의로는그것을다할수없기때문입니다. 19세기까지인간의도덕성에대한자연과학적설명여전히불가능했다는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 물론스피노자(B.Spinoza)가그에접근했고, 이미베이컨역시명료하게말했습니다. 대신이제우리는잘검증된자료들을근거로다음과같은사실들을확인할수있습니다. 즉도덕개념들은생물들의존재자체와깊은관련이있으며, 그것이없다면생물들은생존경쟁에서살아남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모든진보적발전혹은단순유기체로부터인간에이르는진화처럼그러한개념의발전은불가피합니다. 대부분의동물들이군집성, 사회성또필요한경우에는자기희생의단초를갖지않았다면이발전은완성될수없었을것입니다.

우리는이런주장의증명에필요한자료들을아주많이갖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다윈은도덕의기원에대한논문에서, 『인간의유래』¹⁵라는저서에서카라반의개두마리와이집트의개코원숭이무리사이의싸움에대한이야기를소개하였습니다.(이싸움은동물학자인브람[A.Brehm]이보고한것입니다.) 카라반이접근하자원숭이무리는산의가파른바위위 가장높은곳으로올라갔습니다. 그러나위험을벗어나바위위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 나이든수컷들은개를발견하자밀집대형을이루어내려와개들에게맹렬히달려들었습니다. 개들은놀라주인에게로도망가고말았습니다. 다시원숭이를공격하라고독려를받은개들은무리와떨어져바위에 앉아있던반년된새끼원숭이에게달려들었습니다. 그때늙은수컷이혼자 천천히새끼에게로가서, 개를위협해서쫓아버리고새끼의등을쓰다듬고 천천히자신의무리에게로돌아갔습니다.

나이든수컷들은이경우에어떤원리혹은명령에따라그렇게행동해야 했는지를자문하지않습니다. 그들은모든군집동물들사이에서천년에 걸쳐만들어진동정때문에, 군집성과사회성의감정에따라그리고마지막으로자신의힘과자신의용기에대한의식때문에동료들을구하러갔던것입니다. 매우전도유망한자연과학자인세인트베리(Saintsbury)도그런 사례를보고하였습니다. 그는어느날노쇠한눈멀리컨을발견했는데, 다른펠리컨들이물고기를물고먹이를주러날아오는것이었습니다. 다윈

도이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 같은종의이익을위해동물들이희생한다는 사실은지금많이알려져있습니다. 개미, 알프스산양, 초원의말, 모든새 등이그렇습니다. 우리의탁월한자연연구자들이많은사례를제공하였으며, 그결과자연연구에서이제우리는도덕감정과개념의출현과발전을 논의하기위한확고한토대를확보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우리들은세기본요소, 도덕의세구성부분을쉽게구분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성의본능**입니다. 이로부터다음단계의습관과풍속이발전합니다. 둘째는 **정의에대한개념**입니다. 이들을토대로도덕의세 번째요소가발전합니다. 이것은전적으로옳지는않지만, 우리가 **헌신** 혹은 **자기희생**, **이타주의**, **관용**이라부르는감정입니다. 이것은이성에의해확인되는감정으로, 본질상 **도덕감정**이라불려야마땅한것을구성합니다. 모든인간사회에서전적으로자연스럽게발전하는이세요소들로부터도덕이수립됩니다.

인간이파괴한개미충으로부터개미들이서로도와유충을구출할때, 작은새들이맹금을쫓기위해날아들때, 철새들이출발하기며칠전부터 저녁마다일정한장소에모여나는연습을할때, 수천마리의산양혹은사슴이 함께이동하기위해넓은지역으로부터모여들때, 한마디로말해서자연과의투쟁에서심지어열악한조건에서도살아남을수있게하는습관과관습이동물들사이에나타날때, 이모든경우에 **발전된본능이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발전된본능이없다면어떤종류의동물들은 멸종했을것입니다. 사회성은생존경쟁에서필수적인기본형식이었고, 지금도그렇습니다. 그런데다윈주의자들대부분은바로이런자연의법칙을간과하였습니다. 아마다윈자신이첫번째저서인『종의기원』에서이 문제를충분히다루지않았고, 두번째저서인『인간의유래』에서만언급했기때문일것입니다. 그렇지만우리는이본능속에 **도덕의제 1 원리**가 있다고생각합니다. 인간의모든고상한감정과충동은바로이로부터유래하여발전되었습니다.

사회를이루어살았기때문에, 인간사이에서사회성의본능은발전을 계속하였습니다. 자연속에살면서최초의원시인들은협력하는사회를이루며사는동물들이자연과의투쟁에서더잘살아남는것을보았습니다. 그들은동물들의사회적삶이자연과의투쟁을쉽게해준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나중에그들의관찰은속담, 민담, 노래, 종교그리고몇몇사회적 동물들의신격화로구비전승속에남아있습니다. 이렇게사회성의본능은 씨족에게서씨족으로전승되었고, 법으로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내가강연의서두에서언급한씨족제도의규칙들을만들기위해서사회성의본능하나만으로는충분하지않았을것입니다. 실제로원시인들에게서더의식적이고더고상한새로운개념들이조금씩발전하였습니다. 그것은정의에대한개념으로, 도덕의계속적인발전을위해기본적이 며필수적인것이되었습니다.